

사회학

대중예술에 대한 사회학적 관심 가속화

신광영

한림대 교수 · 사회학

90년대 들어 사회학의 연구주제는 대중매체, 영화나 오락, 일상생활, 성 등 다양한 형태의 사회현상들에 주목하고 있다. 일상성의 문제는 한국사회를 이해하기 위해 범죄나 종교생활 등의 문제에도 접근이 필요하다. 세계화·정보화와 관련한 체계적인 연구도 활발해질 것으로 보인다.

사회학이 한국 대학에 정식으로 도입된지 반세기가 흘렀다. 현재 국내의 사회학자의 수는 대략 400명 이상으로 적지 않은 수이다. 10년전 사회학자의 수가 150명에 지나지 않았다는 사실을 고려하면, 사회학자의 수는 폭발적으로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 결과 특정 분야에 전문 연구자들이 축적되어 연구의 심화와 확대가 이루어지기도 하였다.

그러나 지난 80년대까지 한국사회학계에서 다룬 주제들은 몇가지에 한정되어 있었다. 70년대 사회학의 핵심적인 주제들이 인구·가족·도시 등이었다면, 80년대의 연구주제는 주로 계급·국가·노동 등이었다. 이러한 연구주제들은 각기 당시의 시대적 상황이나 제도적 조건을 반영하는 것이었다.

90년대 사회학의 주된 조류는 연구 주제의 다양화와 대중화에서 찾을 수 있다. 사회학 연구자의 관심 영역이 크게 확대되어 대중매체, 영화나 오락·대중문화·일상생활·성 등 다양한 형태의 일상적인 사회현상들이 연구 주제로 등장하였다. 이러한 흐름은 대중적 관심에 대한 사회학적 이해를 강조하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흐름은 두가지 점에서 연유한다. 첫째는 사회변동의 속도가 너무 빨라 기대하지 못한 새로운 현상들이 발현되기 때문이다. 문화와 대중예술에 대한 사회학적 관심은 이러한 흐름을 반영한다. 둘째는 인접학문과의 교류를 통한 간학문적 접근의 필요성이 인식되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사회학·인류학·기호학·정신분석학·철학·역사학 등 상대적으로 독립적이었던 학문간 경계

가 점차 이완되면서 주제의 다양화가 가속화되고 있다. 이제 인위적인 학문적 경계를 그어서 편의적으로 사회현상을 분절시키는 접근이 더 이상 사회현상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물론 이러한 변화는 외국 사회학계의 움직임과 궤를 같이하고 있다. 점차 구미의 지적인 정보와 연구동향에 대한 접근이 쉽게 이루어지면서 구미학계의 영향력도 더 커지고 있다. 구미학계에서 나타난 '언어적 전환'은 포스트모더니즘으로 표출되었고, 문화와 일상성에 대한 연구로 구체화되었다. 이러한 연구는 현대사회의 변화를 이해하는데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것이지만, 한국에서 이루어진 사회학 연구의 경우, 이러한 흐름이 낳고 있는 부작용 또한 지적될 필요가 있다.

현실적으로 한국사회를 이해하는 데 충분한 연구서들이 아직 많지 않다. 전통적인 사회학 주제인 계급과 계층에 관한 연구서들이 축적되어 있지 않으며, 도시에 관한 연구도 별로 많지 않다. 이것은 연구자 수가 적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이기도 하지만, 연구자의 연구 관심이 너무 쉽게 변하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이기도 하다.

일상성의 문제는 단순히 대중문화나 소비생활만으로 구성되는 것은 아니다. 일상성은 소비와 여가뿐만 아니라 다양한 범죄와 일탈로 구성되어 있다. 한국사회는 세계적인 범죄율로 인한 '위험사회'의 대표적인 예이다. 환경오염이나 방사능 누출과 같은 근대적인 문명성에 기인한 위험보다는 오히려 범죄를 통한 다른 사회성원으로부터의 위협이 매우 높은 위험사회를 보여주고 있다. 범

죄문제는 단순히 범죄사회학의 연구 주제가 아니라 한국사회의 변화를 체계적으로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사회학 일반의 연구 주제이다.

또 기성 및 신흥 종교조직을 포함한 종교단체에서 이루어지는 종교생활도 한국인의 일상성을 구성하는 중요한 요소이다. 전세계적으로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폭발적인 팽창을 거듭하고 있는 한국기독교와 사이비 종교와 관련된 사회현상이 한국사회의 근대성을 이해하는 데 결정적인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사회의 종교현상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가 없다는 사실은 일상성의 문제를 너무 서구적인 관점에서만 보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로 보인다.

세계화나 정보화와 관련된 연구서도 지난해 많이 출간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연구서들이 너무 거시적이거나 혹은 너무 미시적이어서 한국사회의 변화 혹은 동아시아의 변화를 이해하는 데 단편적인 지식밖에 제공하지 못하는 한계를 보여주었다. 복합적인 사회변화의 내용을 실타래를 풀듯이 풀어내는 연구들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러한 문제인식은 많이 공유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분야의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질 것이다.

외국의 사회학 흐름과 관련하여 한국 사회학계의 특징적인 한가지는 여성문제에 사회학적 연구가 현저하게 적다는 점이다. 이것은 한국 사회학계가 남성 연구자 중심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중요한 연구 주제가 사회학자의 관심 영역으로 들어오고 있지 못하다는 점에서 한국 사회학이 극복해야 할 한계를 잘 보여주고 있다. ❖

〈謹賀新年〉

새해에도
양질의 교과서로
교육발전에 이바지하도록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1997년 새해 아침

한국2종교과서협회 이사장 金相球

〈謹賀新年〉

한국 전자출판의 세계화를 위해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1997년 새해 아침

한국전자출판연구회 회장 이기성
부회장 박세원
부회장 박영실
부회장 이두영

〈謹賀新年〉

한국청소년도서출판협의회 회원
여러분의 새해 건강과
가정의 평안과
발전적 출판을 기원합니다.

1997년 새해 아침

한국청소년도서출판협의회 회장 오응근
총무 최홍순